



발행인 허재준
편집인 김유빈
편집교정 이승주

자료문의 KLI 학술출판팀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한국노동연구원
TEL 044-287-6083
FAX 044-287-6089

발행일 2024년 12월 20일

2024년 노동시장 평가와 2025년 노동시장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044-287-6603(jwkim@kli.re.kr)

I. 2024년 노동시장 개관

지난해 1~10월 평균 33.6만 명이었던 취업자 증가폭은 2024년 같은 기간 18.4만 명으로 줄었다. 고용률 증가폭이 둔화됐고 실업률은 소폭 증가했으며, 비경제활동인구 감소폭은 줄어들고 있다. 2023년까지 고용지표에서 보였던 긍정적인 변화들이 2024년 들어 전반적으로 약해지는 모습이다.

2024년 고용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남성 고용률은 감소한 반면, 여성 고용률은 증가했다. 남성 취업자가 다수인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이 부진한 반면, 여성 고용 비중이 큰 일부 서비스업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여성 고용률 증가폭은 2023년에 비해 다소 줄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청년층의 고용 부진과 고령층의 고용 증가세가 뚜렷하게 대비된다. 청년층은 신규 취업자를 중심으로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표 1> 주요 고용지표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기대비)

	2022년	2023년	2024년
취업자	866	336	184
실업자	-228	-64	29
비경황	-449	-129	-47
고용률	1.7	0.5	0.2
실업률	-0.9	-0.2	0.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KOSIS.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생산과 수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고용은 부진했다. 건설업은 건설 경기 둔화 영향으로 분기별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됐다. 서비스업 고용 상황은 산업별로 상이하다.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가 이어졌고, 사업시설지원서비스업 고용도 부진했다. 이에 비해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은 양호한 고용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미취업자 변화를 살펴보면, 실업자는 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중장기실업자 위주로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직한지 1년 이내인 인구가 주로 증가했다. 20, 30대 '쉬었음' 인구가 증가했고 대부분 구직의사가 있었다.

2분기부터 본격화된

취업자 증가폭 둔화

아래에서는 부문별 노동시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취업자 동향을 연령대, 종사상지위, 산업별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본 후 미취업자 동향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 현황을 점검한다. 결론에서는 2024년 노동시장 평가를 바탕으로 2025년 고용 전망을 제시한다.

II. 2024년 부문별 노동시장 평가

1. 청년층 고용 부진

20대 취업자는 11.3만 명¹⁾ 감소했다. 취업자 감소폭이 늘었지만, 대부분 인구효과(-11.3만 명)에 의한 것이다. 다만 인구효과만으로 청년 고용 부진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고용률이 5월 이후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해야 하는 청년 졸업자 고용률이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아 청년층 고용 사정은 전년대비 악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대 취업자 감소 중 대부분은 신규 취업자²⁾의 감소였다. 근속 1년 미만 취업자가 10만 명가량 줄었다. 남성은 주로 제조업, 건설업, 여성은 보건업 및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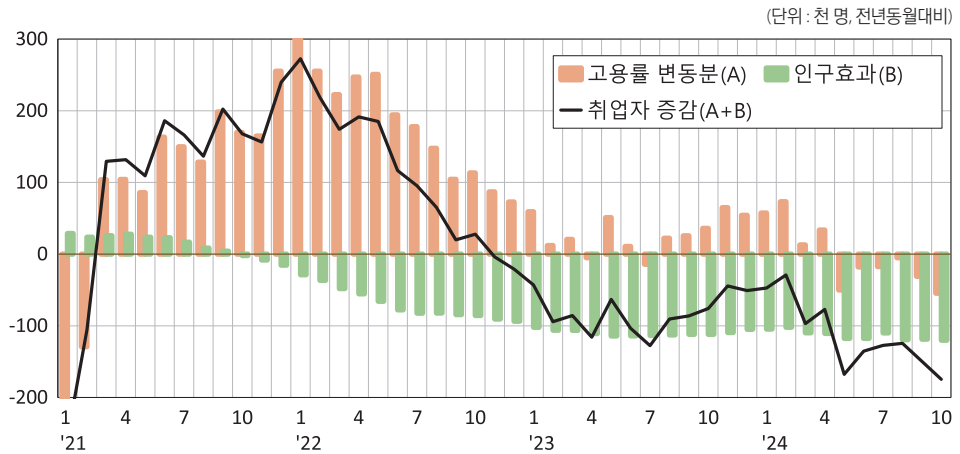
복지서비스업에서 신규 취업자 감소폭이 컸다. 신규 취업자 감소는 고용행정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근속 1년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취업자와 비슷한 규모로 감소했다. 더불어 신규 학졸자³⁾ 고용률도 1.5%p 감소했다.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는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청년 고용이 가장 부진했다. 20대 고졸 이하 졸업자 고용률이 1.7%p 줄었다. 제조업, 건설업을 위주로 고졸 20대 취업자 감소가 이어졌다. 업황 부진에 따른 고용 감소 영향이 청년층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대졸자 고용률 역시 줄었으나 그 폭은 크지 않았다. 간호 직종이 포함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초대졸 취업자가 감소했다. 대졸자 고용률은 소폭 늘었다.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대졸자 고용이 늘었다.

30대 취업자는 9만 명 늘었다. 고용률도 1.2%p 증가하면서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30대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이유는 30대 여성 고용률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4년간 30대 여성 고용률은 30대 초반에서 약 9.3%p, 30대 후반에서 약 13.9%p 증가했다. 동일 기간 어떤 연령대·성별보다 큰 고용률 증가폭이다. 반면 30대 남성 고용은 취업

신규 취업자 위주로 부진한 청년층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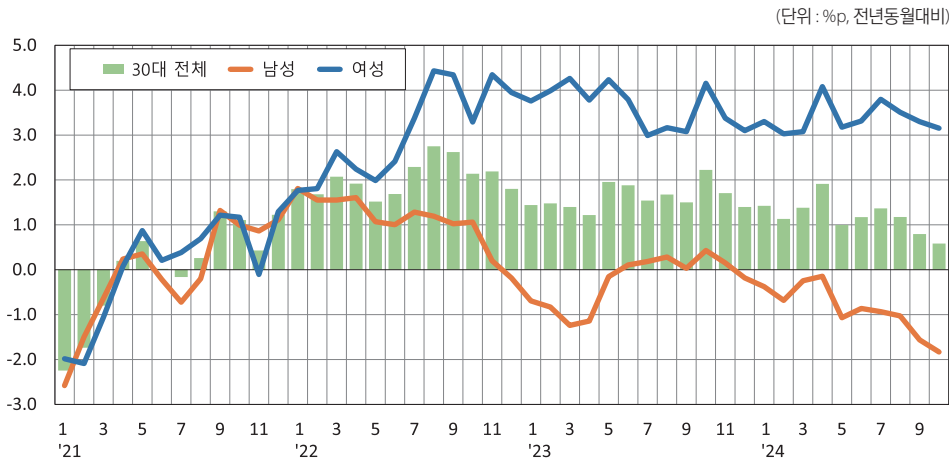
[그림 1] 20대 취업자 수 변화 요인 분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이후 수치는 1~10월 평균 전년동기대비 증감을 의미함.
 2) 신규 취업자는 근속 1년 미만 취업자로 정의함.
 3) 신규 학졸자는 최종학교 졸업연도가 2023년, 2024년인 사람을 의미함.

[그림 2] 30대 성별 고용률 증감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자, 고용률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부진했다.

30대 여성 취업자는 서비스업 위주로 증가했다.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공공행정, 사업시설지원서비스업 순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컸다. 30대 남성 취업자는 주로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창고업 등에서 감소했다.

40대 취업자는 인구효과 영향으로 7.9만 명 감소했다. 인구효과(-11.7만 명)를 제외하면 오히려 3.9만 명 증가했다. 인구 감소폭이 취업자 감소폭에 비해 크기 때문에 고용률은 0.5%p 늘었다. 즉 수치상 40대 취업자 수는 감소했으나 인구효과를 제거하고 보면 40대 고용이 부진했다고 판단하기 힘들다.

40대 취업자 수 변화 요인 분해 결과는 성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모든 요인에 의해 취업자가 감소했다. 여성은 인구효과를 제외하면 취업자가 늘고 있다. 30대와 마찬가지로 여성 고용이 남성 고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았다. 여성 취업자는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운수창고업 등에서 늘었고, 남성 취업자는 제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주로 감소했다.

50대 취업자 수는 3.2만 명 증가했다. 인구가 6.8만 명 증가한 영향이 컸다. 인구효과를 제거한 취업자 수는 2분기부터 감소했다. 고용률도 0.2%p 감소하고 있어 50대 고용은 긍정적인 상황이라 볼 수 없다.

50대 남성 건설업 취업자는 3분기에 크게 감소했다. 건설업 부진이 지속될 경우 감소폭이 더 늘어날 위험이 있다. 남성 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여성 50대 취업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늘었고 이들은 주로 돌봄 관련 서비스직이었다.

60세 이상 고령층 고용은 인구구조 변화와 노인일자리사업 영향에 의해 좌우된다. 인구효과에 의해 취업자가 크게 증가한 데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로 간주할 수 있는 취업자⁴⁾는 7.7만 명 증가했다. 노인일자리사업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전 연령대 중 취업자 증가폭이 가장 크다. 또한 안정적인 고용률 증가세, 실업률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즉 고령층의 경제활동 진출은 여전히 활발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취업자 증가폭은 과거에 비해 다소 줄었다.

2. 상용직 증가폭 둔화

2024년 상용직 증가폭은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2023년 1~10월 평균 상용직 증가폭이 49.2만 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18.4만 명에 그쳤다. 임시직은 크게 늘었고 일용직은 감소세를 더했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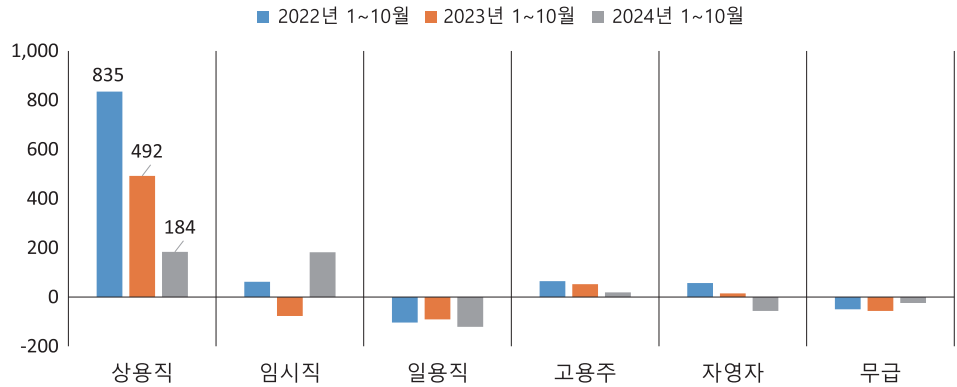
여성 중심의 30대 고용 증가

60대 취업자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

4) 65세 이상 임시직·공공행정 및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단순노무직 취업자를 의미함.

[그림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변화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용직 증가폭 둔화**

상용직 변화를 업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상용직 증가폭이 둔화됐다. 이 산업에 종사하는 50세 이상 중·고령층 상용직의 규모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그 외 연령층에서는 상용직 증가폭이 줄었다. 제조업, 건설업에서는 부진한 업황의 영향으로 상용직이 감소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상용직 증가폭도 줄었다. 반면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상용직은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세다.

제조업 고용 둔화 지속

임시직은 다양한 산업에서 증가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간호·간병 인력이 다수 포함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임시직이 가장 많이 늘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임시직도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고용이 부진한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도 임시직은 늘었다. 도소매업에서만 임시직이 감소했다.

일용직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일용직 변화의 대부분은 건설업 고용 변동으로 설명된다. 건설업 일용직은 2020년 이후 꾸준히 감소했고 2024년에도 전 산업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파견 인력의 비중이 높은 사업시설지원서비스업에서도 일용직이 감소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5.6만 명 감소했다. 도소매업, 농림어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주로 감소했다. 개인사업자 폐업이 꾸준히 늘어나 2023년에는 91만 건에 달했고 이는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다. 개인사업자의 이탈은 2024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3. 제조업 고용 둔화 지속

제조업 취업자는 2024년 1~10월 평균 1.2만 명 증가했다. 지난해 취업자가 감소한 기저 영향으로 상반기에는 제조업 고용이 증가했다. 그러나 3분기 이후 제조업 취업자는 예상보다 부진했다. 제조업 사업체 종사자 수는 증가세가 약화됐고, 외국인을 제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도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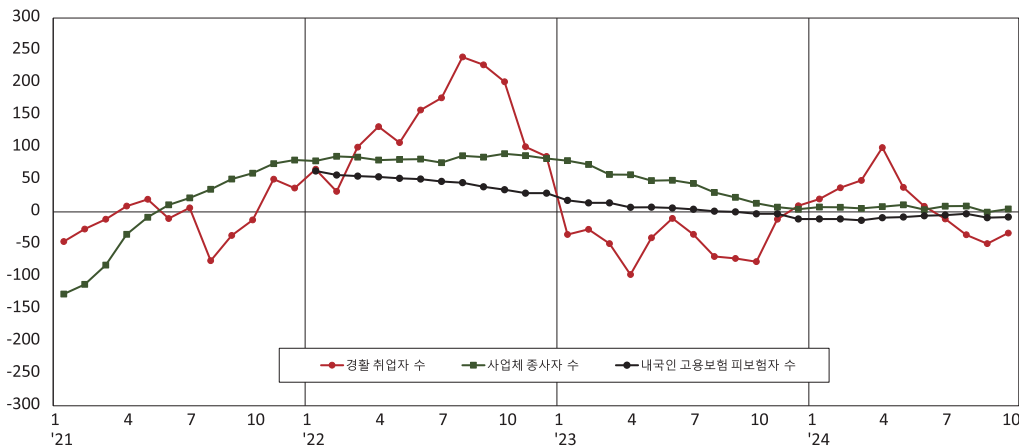
제조업 경기가 회복세를 보였음에도 제조업 고용은 지난해부터의 부진한 흐름이 올해까지 이어졌다. 제조업 경기 상황과 고용 간 괴리는 제조업 경기 개선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나타난 영향이 크다. 반도체는 생산과 수출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생산 및 수출 증가율이 높지 않았다. 올해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의 경기는 상대적으로 약한 회복세였기 때문에 제조업 고용 성장의 동력이 확보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 또한 반도체 경기 상승으로 인한 제조업 고용 증가 효과도 미미했다.

4. 건설업 고용 부진 심화

건설업 취업자는 2024년 1~10월 평균 3.3만 명 감소했다. 2분기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3분기에 감소폭이 더욱 확대됐다. 올해 건설업 취업자는 상용직과 일용직에서 감소했다. 4년 가까이 증가했던 건설업 상용직은 올해 4월부터 감소했다. 건설업 일용직은

[그림 4] 제조업 고용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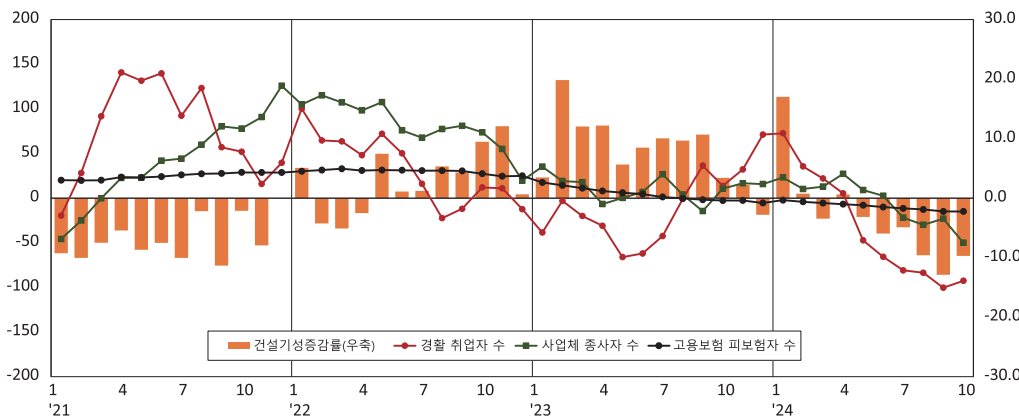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통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EIS.

[그림 5] 건설업 고용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통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EIS.

건설업 고용 큰 폭 감소

지난 몇 년간 감소세다. 올해도 기능직 감소가 이어졌고, 7월 이후로는 단순노무직 감소폭도 확대됐다.

사업체노동력조사의 건설업 종사자 수도 하반기 이후로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종합건설업에서 고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3분기 이후 전문직별 공사업에서도 감소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건설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도 매월 감소했다.

올해 건설업 고용 감소는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수요 위축에 기인한다. 건설투자는 2분기에 감소로 전환됐고, 3분기에는 감소폭이 확대됐다. 건설기성도 2분기 이후 감소했다. 건축 부문에서 공사 물량의 대폭 감소가 건설업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

5.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 둔화

서비스업 취업자는 2024년 1~10월 평균 23.9만 명 증가했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보다 약 18만 명 줄어 들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시설지원서비스업에서 지난해보다 고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서비스업 고용은 여성 중심으로 증가했다. 여성 취업자는 공공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순으로 증가했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서비스업 중 가장 많은 5.5만 명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비임금근로자가 5.5만 명 감소했고, 6월부터 상용직 감소폭도 더해졌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2.7만 명 증가했지만,

여성 중심으로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표 1〉 평균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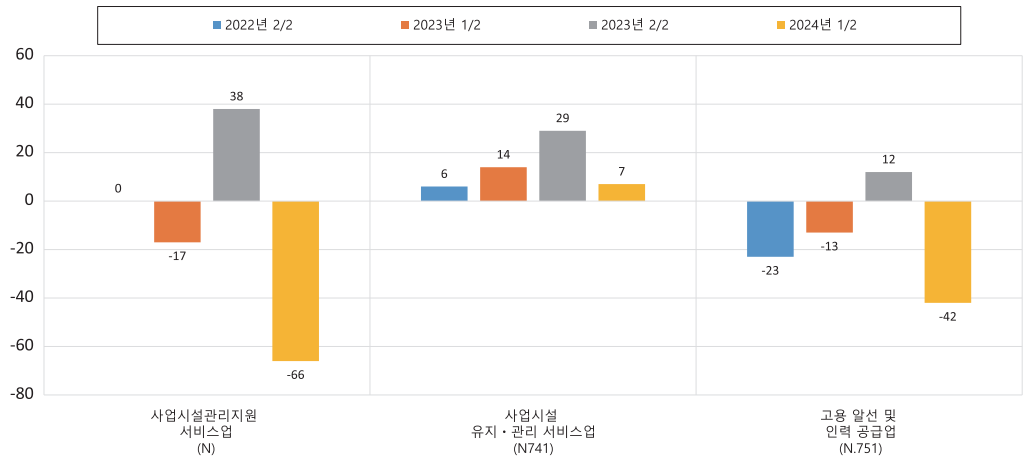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23년 1~10월	2024년 1~10월	2024년 1~10월	
			남성	여성
서비스업 전체	423	239	4	236
- 도소매업	-45	-55	-27	-28
- 운수창고업	-19	62	39	23
- 음식숙박업	135	27	-10	37
- 정보통신업	54	74	29	45
- 금융보험업	9	10	-2	12
- 부동산업	-16	-19	-14	-5
- 전문과학기술	70	62	29	34
- 사업시설지원	8	-48	-31	-17
- 공공행정	24	43	-22	65
- 교육서비스	2	-12	-15	3
- 보건 및 복지	154	88	32	57
- 예술, 스포츠	31	10	4	6
- 협회, 기타개인	15	0	-7	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6〉 사업시설지원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노인일자리 참가자 중심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해보다 10만 명 줄었다. 상용직·30~59세·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됐다.

사업시설지원서비스업 취업자는 4.8만 명 감소했다. 지역별 고용조사 기준,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취업자는 소폭 증가했으나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취업자는 크게 감소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8.8만 명이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지난해에 비해 줄었다. 노인일

자리사업 참여자로 간주할 수 있는 고령층·임시직·단순노무직 취업자가 주로 증가했다. 반면 보건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전문직·상용직 취업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하였다.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각각 취업자가 7.4만 명, 6.2만 명 증가했다. 두 업종 모두 장기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고용호조를 뒷받침하고 있다. 공공행정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층의 영향으로 취업자가 4.3만 명 증가했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추세

다. 운수창고업은 운송 관련 서비스업 고용이 늘어나면서, 취업자가 6.2만 명 증가했다. 자영업자 고용은 둔화하고 상용직 중심으로 증가했다.

6. 구직기간 3개월 이상 실업자 증가

2021년부터 3년간 감소했던 실업자와 실업률은 2024년 증가했다. 실업자의 평균 구직기간은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폭이 확대됐다. 실업자 수도 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중장기적 실업자가 증가했다.

실직기간이 1년 미만인 실업자(전직 실업자)는 2024년 상반기 증가했다. 전직 실업자는 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직장을 그만뒀다. 특히 2분기에는 임시직 및 계절적 일의 완료로 인한 실직이 크게 늘었다. 반면 자발적 사유 중 작업 여건 불만족으로 그만둔 실업자는 감소했다.

전직 실업자는 고용이 부진한 업종에서 증가했다. 이들은 건설업(1.6만 명 증가)과 연관 업종인 부동산업(6천 명 증가)에서 증가했다.

〈표 2〉 구직기간별 실업자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구직기간	1~10월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3개월 미만	-52	-106	-32	-1
3-5개월	-10	-86	-18	18
6개월 이상	16	-35	-14	1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7. 노동시장적 사유로 쉬는 20~30대 인구 증가

비경제활동인구는 2021년 2분기부터 감소했던 추세가 멈추고 2024년 3분기에 증가했다. 취업 경험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올해 감소했다. 취업 비경험 비경제활동인구는 15~29세 청년층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활동상태별로도 통학 사유에서 감소했다. 이들의 감소는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이 크다.

반면 취업 경험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했다. 실직기간이 1년 미만인 비경제활동인구는 4.5만

명 증가했다. 2023년에는 자발적인 사유로 실직 후 '쉬었음'이 증가했었다. 올해에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고 육아가사에 참여하거나 그냥 쉬고 있는 인구가 늘었다. 실직기간이 1년 이상인 비경제활동인구는 연로, '쉬었음' 사유로 증가했다.

'쉬었음' 인구는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다. 60세 이상 '쉬었음' 인구는 3분기에 12.2만 명 증가했다. 고령층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 몇 년간 연로와 '쉬었음' 상태를 오가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층의 '쉬었음' 인구 증가를 노동시장 문제라고 보긴 힘들지만, 증가 규모 자체는 이례적이다.

한편 20대와 30대는 노동시장적 사유로 '쉬었음' 인구가 증가했다.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거나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 쉬는 청년은 2023년에 이어 올해도 증가했다. 또한 일자리에서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고 쉬는 청년도 증가했다. 증가한 '쉬었음' 청년 인구의 절반은 1년 내 취업·창업 계획을 하고 있다. 취업·창업 비희망 '쉬었음' 청년 인구는 대다수는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30대는 이직준비를 위해 쉬는 인구가 2년 연속 증가했다. 구직의사가 있는 '쉬었음' 인구라 볼 수 있다. 종합하면 2024년 증가한 20대와 30대 '쉬었음' 인구의 대부분은 구직의사가 있거나 진학을 준비하고 있어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III. 2025년 고용 전망

2025년 노동시장은 2024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 주요 전망기관들의 낮아진 성장률 전망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KDI 역시 성장세 둔화를 전망했다. OECD 또한 지난 12월 4일 내년 성장률 전망을 기존 2.2%에서 2.1%로 낮췄다.

성장률 둔화는 업황 전망이나 노동공급적 요소가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 상응하는 영향을 미친다. 2024년 하반기 고용 증가폭은 약 14만 명 수준으로 둔화했으나, 보진

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실업자가 증가

실업자는 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

증가한 고령층 '쉬었음'은 노동시장 문제라 보기는 무리

20~30대 '쉬었음' 인구는 대부분 구직의사가 있거나 진학을 준비 중

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운수창고업의 고용 호조가 뒷받침된 결과였다. 하지만 2025년에는 내수 부문에 큰 반등이 없어 서비스업 고용 확대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 역시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 중국경기 불안, 지정학적 갈등 등 세계 경제의 하향 위험도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사료된다. 노동시장 전반에서 취업자 증가폭을 확대할 긍정적 요소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2025년 취업자는 전년대비 약 12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25년 취업자는 전년대비 약 12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취업자 증가폭(18.2만 명)보다 6.2만 명 감소한 수치다. 이러한 증가폭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경기둔화의 영향과 함께 인구효과와 정부 직접일자사업 증가세의 둔화가 꼽힌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올해 34만 명 줄어들었으며, 2025년에는 감소폭이 38만 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취업자 증가폭을 약 2만 명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직접일자사업의 실질 물량도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정부 직접일자사업의 실질 물량은 고용통계에 모두 반영되지 않고 통상 약 70% 정도 반영된다. 2024년 정부 직접일자사업은 전년대비 11만 2천 개⁵⁾ 늘어났으며, 이 중 약 8만 명이 고용 통계

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2025년에는 전년대비 7만 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통계에 반영되는 인원은 약 5만 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 일자사업의 고용기여 효과는 2024년 대비 약 3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하면, 인구효과와 정부 직접일자사업의 증가폭 둔화는 2025년 취업자 증가폭을 전년대비 약 5만 명 정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업종별 경기 둔화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의 하방 압력을 추가로 고려한 결과가 본원 전망의 주요 근거이다.

다만 위 전망치의 둔화 폭이 예상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내수마저 예상보다 크게 위축될 경우 고용창출 여건이 한층 악화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정부 일자사업 둔화가 맞물리면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약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고, 일자리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정부는 고용정책 운용에 있어 단기적 경기 부양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표 3〉 2025년 연간 고용 전망

(단위: 천명, %)

	2024			2025p		
	상반기	하반기p	연간p	상반기	하반기	연간
취업자	28,449	28,747	28,598	28,540	28,896	28,718
(증가율)	0.8	0.5	0.6	0.3	0.5	0.4
(증감수)	220	144	182	91	149	120
실업률	3.1	2.6	2.9	3.2	2.6	2.9
고용률	62.5	63.0	62.8	62.5	63.2	62.8

주: p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5) 시니어인턴십, 취업알선형 등 민간형 일자리 사업은 제외함 수치임.

※ 본 「KLI 고용·노동브리프」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